투어 번호
LKB5XWS95M

매혹적인 스리랑카 (18일)

18일 · 17박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체험 소개

이 18일 투어는 개인 차량과 운전 기사 가이드와 함께 스리랑카 전역을 종주합니다. 서해안의 네곰보 해변에서 출발하여 문화삼각지대를 거쳐 중부 산악 지역으로 올라가고, 남동부의 야생동물 공원을 거쳐 최종적으로 우나와투나 남부 해안에 도달하는 경로를 따릅니다. 단발라와 시기리야 같은 고대 유적지를 캔디와 누와라 엘리야 주변의 차 재배지와 결합하고, 얄라에서의 사파리, 그리고 휴가를 마무리하기 위한 긴 해변 시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여행입니다.

여행객들은 역사, 자연, 해변의 혼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굴 사원과 암반 요새, 미너리야의 코끼리 모임, 마을 주민처럼 보내는 하루, 치아 사원과 페라데니야 정원, 언덕을 통과하는 경관 열차 여행, 엘라에서의 등산일, 얄라에서의 표범 사파리, 그리고 세 날을 우나와투나의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기 전의 오래된 요새 도시 갈레입니다.

투어의 속도는 한결같으며, 각 지역을 충분히 흡수할 시간이 있도록 여러 다중야 숙박이 포함되어 있어 서둘러 지나가지 않으며, 마지막 날들은 해변에서의 수영과 수상 스포츠를 즐기고 비행기로 귀가하기 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남겨집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네곰보 (1~2일차)

서해안의 네곰보에서 이틀간 여유롭게 머물며, 해변을 즐기고 이 도시의 오랜 어업 전통도 함께 둘러봅니다.



네곰보 해변

서해안의 모래 해변에서 수영과 휴식을 즐기고, 다이빙 같은 수상 스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네곰보 수산 시장

이 해안 지역에서 수백 년째 이어져 온 어업 현장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난파선 다이빙 포인트

해안에서 가까운 곳에 50년 된 난파선이 있으며, 다양한 어종의 서식지가 되어 산호와 수중 생태계를 즐기려는 다이버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Day 3 네곰보 → 담불라

내륙으로 향하는 담불라행 여정에서는 바위를 깎아 만든 석굴 사원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이는 스리랑카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유적 중 하나입니다.



담불라 석굴 사원

기원전 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석굴들에는 부처의 생애를 그린 고대 벽화와 수백 개의 불상 및 여러 신상들이 다섯 개의 주요 석굴, 즉 신성한 왕의 석굴, 대왕의 석굴, 그레이트 뉴 모나스터리(새 대사원)에 걸쳐 모셔져 있습니다.

Lankapic · CC BY 2.5

황금 불상

석굴 단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거대한 황금 불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Day 4 담불라 → 시기리야 → 민네리야 → 담불라

시기리야 바위산 등반과 민네리야 국립공원에서의 오후 사파리를 함께 즐기는 날로, 밤에는 다시 담불라로 돌아와 묵습니다.



시기리야 암굉 요새

5세기 카샤파 왕을 위해 지어진 바위 요새로, 거대한 사자 발 모양으로 꾸며진 입구를 통해 들어갑니다. 등반 길에는 색이 바래지 않은 프레스코 벽화, 계단식 정원, 지금도 작동하는 저수조와 터널을 지나 궁전 유적까지 오르게 됩니다.

Wrobell · CC BY-SA 3.0



민네리야 국립공원

세 시간 동안 이어지는 사파리로, 5월부터 10월 건기에 150마리 이상의 코끼리가 모이는 '그레이트 엘리펀트 개더링'으로 유명하며, 그 밖에도 다양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를 만날 수 있습니다.

Stuart Pinkney · CC BY 2.0

Day 5 담불라

주요 관광지에서 벗어나 담불라 주변의 마을 생활을 체험하는 하루입니다.

마을 체험

소달구지 타기, 고요한 호수를 가로지르는 카타마란 보트 투어, 논길 산책, 그리고 전통 요리 시연 후 연잎에 담겨 나오는 가정식 점심까지, 스리랑카 농촌 생활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하루입니다.

Day 6 담불라 → 마탈레 → 캔디

캔디로 향하는 길에는 스리랑카의 향신료 산지인 마탈레를 지나 불치사(佛齒寺)에 도착하게 됩니다.



향신료·약초 정원

스리랑카의 향신료 수도라 불리는 마탈레 인근에 위치한 정원으로, 아유르베다에 사용되는 허브와 향신료, 식물들을 재배하며, 가이드와 함께하는 향신료 투어를 통해 각각의 용도를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불치사(佛齒寺)

16세기에 부처의 신성한 치아 유물을 모시고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화려하게 채색된 홀과 조각된 기둥, 황금 불상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A.Savin · FAL

Day 7 캔디 → 페라데니야 → 캔디

캔디에서 페라데니야 식물원으로 떠나는 당일 여행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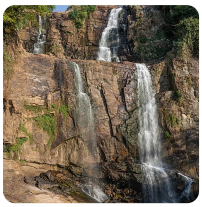
페라데니야 왕립 식물원

19세기 초에 조성된 식물원으로, 넓은 부지에 난초, 향신료 식물, 약용 식물을 포함해 4,000종 이상의 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캐논볼 나무, 현수교, 미로 정원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Day 8 캔디 → 누와라엘리야

누와라엘리야로 올라가는 길에는 폭포와 차 농장을 지나게 되며, 목적지에 도착하면 영국인들이 영국 전통 시골 마을을 재현해 만든 고산 도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람보다 폭포

스리랑카에서 11번째로 높은 폭포로, 누와라엘리야로 올라가는 길에 볼 수 있습니다.

A.Savin · FAL

맥우즈 차 농장

1824년 처음 스리랑카에 차나무가 들어온 이후, 1850년대 제임스 테일러에 의해 상업적으로 도입된 실론 차의 품종, 가공 방식, 품질 등을 가이드와 함께 둘러보는 투어입니다.



학갈라 식물원

그늘진 가로수길과 색색의 미로 정원을 산책할 수 있습니다.

Own work of Buddhika Mawella · CC BY-SA 3.0



그레고리 호수

호숫가를 따라 여유롭게 걸어볼 수 있습니다.

Rehman Abubakr · CC BY-SA 4.0



누와라엘리야 타운

영국 전통 시골 마을 양식으로 지어진 고산 도시로, 조지안 및 퀸 앤 양식의 건물들, 성공회 교회, 골프장, 잘 가꾸어진 공원들이 있으며, 공기가 시원하고 맑게 유지될 만큼 높은 지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Abdul malik77 · CC BY-SA 4.0

Day 9 누와라엘리야 → 호튼 플레인스 → 누와라엘리야

초원과 운무림, 전망대로 유명한 호튼 플레인스 국립공원으로 떠나는 당일 여행입니다.



호튼 플레인스 국립공원

오히야 지역에 위치한 고산 초원과 운무림으로, 고유종 동물들과 고고학적 발견지가 있으며, 월드 엔드 전망대의 경관과 베이커스 폭포의 시원한 물보라를 느낄 수 있습니다.

Faslan at en.wikipedia · CC BY-SA 3.0

Day 10 누와라엘리야 → 엘라

고지대를 가로지르는 경치 좋은 기차 여행으로 누와라엘리야에서 엘라까지 이동합니다.



나누오야-엘라 기차 여행

스리랑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산 지대를 가로지르는 기차 여행으로, 차 농장과 안개 낀 마을들, 하푸탈레 주변 풍경, 산과 숲, 폭포를 지나게 됩니다.

Chamal N · CC BY-SA 3.0

Day 11 엘라

엘라 주변을 세 시간 동안 걸으며 가장 유명한 전망대와 명소들을 둘러봅니다.



리틀 아담스 피크

푸른 차밭과 바위 지대를 지나 리틀 아담스 피크의 전망을 감상합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나인 아치 브리지

다리를 건너며 그 건설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Deitel55 · CC BY-SA 3.0



데모다라 기차역

독특한 루프형 선로 구조로 유명한 이 역에서 하이킹이 마무리됩니다.

A.Savin · FAL

Day 12 엘라 → 얄라

엘라에서 얄라로 이동하는 날로, 도착 후 호텔에 체크인합니다.

Day 13 얄라

스리랑카에서 두 번째로 큰 국립공원인 얄라 국립공원에서 사파리를 즐기는 날로, 남동부 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얄라 국립공원 사파리

세 시간 동안 진행되는 사파리로, 스리랑카 표범, 야생 물소, 스리랑카 늘보곰, 대규모 코끼리 무리를 비롯해 다양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무척추동물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Ranmith Welikala · CC BY-SA 4.0

Day 14 얄라 → 우상고다 → 루마살라 → 우나와투나

얄라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길에는 황량한 해안 고원 우상고다와 루마살라 언덕, 그리고 오래된 요새 도시 갈레를 지나 우나와투나에 도착합니다.



우상고다

나무 한 그루 없는 해안 고원으로, 독성 중금속을 함유한 사문암 지대라 일부 강인한 식물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현지 전설에서는 이 황량한 땅을 라마야나와 연결 지어, 하누만의 불타는 꼬리와 라바나 왕이 전차를 세운 장소로 전해집니다.

A.Savin · FAL



루마살라

갈레 동쪽에 위치한 언덕으로, 정상에는 흰색 불교 사리탑이 있어 우나와투나 해변에서도 랜드마크처럼 보입니다. 현지 전설에 따르면 하누만이 떨어뜨린 드로나기리 산의 파편이라 전해지며, 시타가 랑카에 머물던 시절과도 관련이 있는 장소로 여겨집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갈레 요새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에 의해 세워진 아시아 최고의 보존 상태를 자랑하는 요새로, 박물관과 등대, 네덜란드 시대의 이름이 남아 있는 자갈길들이 있습니다.

Rovin Shanila · CC BY-SA 4.0

Day 15 우나와투나 (15~17일차)

스리랑카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 중 하나인 우나와투나에서 사흘간 자유롭게 머무는 날들입니다.



우나와투나 해변

모래와 햇살, 바닷바람을 즐기고, 석양을 감상하며, 거북이 산란 장면을 관찰하고, 제트스키와 윈드서핑 같은 수상 스포츠도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Day 18 우나와투나 → BIA

아침 식사 후 체크아웃하고 공항으로 이동하여 귀국 항공편에 탑승합니다.

포함 사항

포함

-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 Fuel, Parking & Highway tolls.
- Service of English-Speaking Chauffeur Guide.
-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

미포함

- Entrance fees to the respective sites.
- Hotel Accommodation and Meals.
- Chauffeur Guide's Accommodation.
-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Visa and Related Expenses.
- Tips & Portages.